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15일 팡파르...“평화 가치 체험”

나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평화·인권 활동가 한자리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

세계 평화·인권 활동가들이 광주에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린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가 공동주최한다. 올해부터 5·18기념주간에 개최해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올해 포럼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다. 세계적 인권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인권도시들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과 평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개·폐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킹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인권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숙한 연사들도 참여한다.

개회 기조연설은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가 맡는다. 서 교수는 1974년 유학생 신분으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간 옥고를 치렀다. 서 교수는 1974년 국제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세계의 양심수로 국제사회에 주목받았다.

개회식 직후에는 ‘평화를 향한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열린다.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양심의 회복’을 주제로 발제한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권, 생태, 평화의 교차점을 짚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17일까지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킹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다채롭게 열린다.

주제회의는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모여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마을, 여성, 사회경제적, 지구촌 반폭력 문화확산 등 7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인권연수는 아시아지역 공무



광주 동구, 동구발전혁신위원회 회의

원을 대상으로 광주시 인권정책과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 참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교육도 이뤄진다.

시민이 인권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

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배우 차인표의 ‘우리가 언젠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북토크 콘서트, 인권 영화 ‘흔자’ 상영회, 자연식물식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밥상’ 등이 진행된다.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

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더 많은 시민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해 평화의 가치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3600억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본격화

국토부 심의 통과...내년 착공

전남도는 6일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이달 안으로 국가산단 지정과 계획승인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추진하는 대형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3,6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주 왕

곡면 덕산리 일원 122만㎡(36만평) 부지에 에너지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앞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업투자 수요 부족 등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철회됐지만, 2022년 예타를 다시 의뢰해 통과됐다.

이후 지난해 6월 국토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한 지 10개월만인 지난달 30일 중앙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은 앞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신소재·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IT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지향적 산업 기반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심의 통과는 전남도와 관계기관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에 되도록 전력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시, 난자·정자 냉동지원

광주시는 6일 “의학적 치료 등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의학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시술비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완료 후 대상자가 신청서, 진단서, 시술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배강숙 시 건강위생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생식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덜고, 미래 임신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 지원 호응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중인 ‘광주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KB금융그룹의 후원(사업비 10억원)으로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1자녀 기준 최대 360만원(월 60만원씩 6개월), 2자녀 기준 최대 540만원(월 90만원씩 6개월) 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

봄센터(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후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받는다.

이영동 시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소상공인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여수시, 문체부 지역관광개발 공모 선정

120억 투입...섬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사업 전국 단위 공모에 여수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엔 전국 14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개 사업이 현장발표 등을 거쳐 최종 3개 사업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전남을 대표해 신청한 여수시가 포함됐다.

여수는 앞으로 지역의 특화 소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120억원(국비 60억원·지방비 6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계섬박람회 주제관과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빛이 들려 주는 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여수 빛섬길 조성, 미디어 바다(콘텐츠) 개발, 빛섬 브랜드와 굿즈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전남도의 지원과 체계적인 준

비, 여수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긴밀한 협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된다. 도는 사업 대상지 선정과 계획서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용역과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완성도를 높였고,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에도 힘써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전남도와 문체부는 공모에 선정된 여수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료까지 전 주기에 걸쳐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6일 “이번 선정이 여수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민주 “11일 밤까지 재판 연기 결정하라”

▶1면서 계속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후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법관 탄핵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수단 중의 하나로 포함되는 수준을 넘어서,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내일이나 모래에 상당한 규모가 대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청문회와 특검, 국조 등도 동시에 병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부를 견제

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외 벌금형의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됐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함께 육아’ 캠페인

육아는 한마음 아이는 큰희망

보건복지부 | 전라남도 |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수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원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번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 신입·경력사원 | 영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0 / 010-2603-1050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자하인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H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정품 화환 75,000원 |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 농협 박배성 302-0316-64911